

독도 에세이 공모전 축하



주보스턴 박강호 총영사

오늘 독도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먼저 공모전을 주최하고 진행하느라 수고해주신 더그레이프바인즈 김지희 편집장님과 많은 참여작을 하나 하나 신중하게 심사 해주신 이충시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에 작품이 당선돼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하는 등 최근 일본의 행위는,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문제를 분쟁지역화하고 정치화하려는 일본의 불순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금번 에세이 공모전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보스턴을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우리 동포사회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독도에 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현지 사회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참가자 여러분 각자에게도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역사 의식에 대해 고민하고 공을 들여 작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독도에세이 공모전이 뜻 깊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ory Message

Congratulations on holding the Dokdo Essay Contest!

First, I'd like to convey my appreciation to those who hosted and supported the Contest: the chief editor Jihee Kim of The Grapevine Times arranged and supervised this Contest; all the judge members led by Mr. Choong See Lee reviewed each essay with great contemplation and care. I also send my heartfelt applause to all awardees of the Contest.

As you know, the undeniable evidences of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are widely available in historical, geographical and legal records. A recent Japanese government's attempt to bring Dokdo to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only revealed its ulterior motive, that is, to politicize and take issue with Dokdo.

Given these recent circumstances, TGT's hosting of Dokdo Essay Contest is both timely and appropriate. I believe such effort will help our Korean expatriates and local communities in New England not only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but also bring proven facts surrounding Dokdo to light.

Lastly, it is my wish that the endeavor of researching and writing for Dokdo Essay Contest itself served as both meaningful and rewarding experiences for all participants.

Thank you.

Kangho Park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oston